

COLUMN

戊子년에는 부자가 될 꿈을 꾸어보자.



▣ 장규호
사) 한국오리협회장 고문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을 보면 국내 축산업 중에서 돼지가 1위인 3조6천93억원, 한우가 2위인 2조8천356억원, 3위가 우유로 1조 5천213억원, 4위는 닭으로 1조 3천300억원, 5위는 계란으로 8천674억원, 그 다음으로 오리가 6천480억원으로 6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오리협회 출범 당시인 1992년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무려 32.4배의 성장을 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일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정부 당국에서 내 놓 자식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루어낸 일기기에 더욱 뜻 깊은 것이다. 이는 축산업 전체에서 전무후무한 일로서 박수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 축산국에서 내어놓는 자료에는 소, 돼지, 닭만 있지 오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축산업 발전대책에는 소, 돼지, 닭만 있고 오리는 없으니 오리는 수산물인가? 아니면 임산물인가?

축산업 생산규모에서 닭의 50%를 차지하고, 계란의 75%를 차지할 정도의 오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이것은 당국자의 무지 또는 무관심을 탓할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자세에도 문제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오리산업이 요즘처럼 정부의 관심을 끄는 데는 AI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오리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양계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계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다보니 덩달아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오리생산액이 6,480억원에 도달한 시점에서 한번쯤 생각해볼직하다. 1992년 이후 오리업계는 그야말로 지금 소, 돼지, 닭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엄청난 수입육과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당시 베트남 태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 밀어 닥치는 값싼 수입오리육과의 판매경쟁에서 얻어 터지고, 깨지면서 아무런 무기 하나 주지 않고 전장에 내보낸 정부당국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다.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협회를 만들었고 대외적으로는 대정부 로비,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 거기엔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오리농법연구회 창설과 음식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료자원연구소를 만들었고 대내적으로는 오리생산원

이것은 당국자의 무지 또는 무관심을 탓할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자세에도 문제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당국자의 무지 또는 무관심을 탓할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자세에도 문제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기를 줄이고 오리고기의 품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협회 설립 후 16년이 지난 지금 오리업계에는 각종 기능성 오리제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오히려 기능성제품이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런 사례가 어느 축종에 있었던가? 이것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양돈 등 타 축종에서는 자구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대정부 로비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부당국자들은 각국간의 FTA체결로 인하여 그 타 개척의 일환으로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각종 기능성, 나아가 무항생제 축산을 독려하고 있다. 아직도 신도불이에 의지해 국내 축산을 지키려는 발상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소비자가 한두 번쯤은 사먹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농민 여러분들도 값싼 중국산 의류라던가, 신발류 한두 가지는 사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주머니 떡도 싸야 먹는다”고 싸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면 그것으로 경쟁은 끝난다. 그러나 국내의 인건비는 경쟁국과 비교해 봤을 때 상

당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자동화에 의한 인건비 절감이나 품질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 자동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뒤따른다. 막상 필요성을 느껴 도입하려 해도, 엄청난 비용과 축산에 전망이 불투명하여 망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E.U와의 FTA 협상 내용 중에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을 이유로 국내 축산물의 수출이 봉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축산여건으로서는 자동화에 의한 원가 절감, 2012년부터 항생제 사료 혼합금지, 거기에 동물 복지에 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든지 여타 축산업계는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오리업계도 무항생제를 부르짖는 업체가 많이 생겨났다. 많이 생기는 것은 좋으나 품질 인증은 꼭 받고 하기 바란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따져보고 해야 할 일이다.

축산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항생제 사료 혼합 금지가 실시되는 배경에는 “앞으로의 축산은 친환경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동시에 친환경 축산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질병이 생겼을 때 쉽게 항생제를 써서 넘어 갔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 동안은 사용되지 않던 수많은 천연약재를 검증하고 사육과정에 응용하고 하는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많은 숙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만 한다.

최근 목우촌에 이어 마니커에서도 무항생제 닭을 ‘마미안’ 이란 이름으로 출시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농가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친환경 축산 시대가 열린 느낌이다.

그래서 친환경축산 하는 사람이 새로운 모델로서 존경 받고, 농가소득도 높아져 축산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기원해 본다.